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임실군, 올해 1억4500만원 투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90여대

임실군이 대기오염에 따른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오는 22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올해 1억 4,500만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90여대를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1833-743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

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된 차량 중에서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우선지원 및 사회적 공헌 약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지원에 포함되어 신청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속중일 경우 증빙자료

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와 함께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석봉 환경보호과장은 "2017년부터 341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구제역·AI 차단방역 총력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강화로 격상됨에 따라 순창군은 1인 상황 근무에서 2인 상황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 안성 및 소 한우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루어진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최근 구제역 발생 직후 관내 우제류 농가 1,510농가에 대해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통해 방역 예찰을 강화하고, 긴급히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해 소독 철저와 예방 활동을 강

화했다. 또한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우제류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취했다.

또 방역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우제류농가 예찰과 취약농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축협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소규모농가와 축산 관련시설의 소독을 강화해 방역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석회와 소독약품 10톤을 우제류 사육농가에 공급해 축사 내 외부의 농장방역을 강화

하는 한편 거점소독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해 가축수송차량의 소독 강화로 군내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재정적 손실이 큰 만큼, 24시간 비상 체제를 가동해 선제적 차단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는 즉시 읍면 및 순창군 가축방역 상황실(063-650-5116, 1588-406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직원특강으로 도시재생 본격 시동

순창군은 최근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간부 및 계장급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순창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군은 2020년에 있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의 최종선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시재생이다"면서 "부서별 소통을 강화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대학생일자리 참여자와 간담회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이 최근 겨울방학 일자리사업 참여 대학생들과 일자리와 남원시정 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일 시작, 합파소리체험관 체험도유미 등 12개 사업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사업에는 60여명이 신청해 2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고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부원 등 5개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이환주 시장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시정을 이해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고향 남원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친절·청결 우수업소에 추어탕 전문점 새집 등을 선정했다.

# 남원시, 친절·청결업소 2곳 선정

### 추어탕 전문점 새집·상록골프장 등

남원시는 올해 식품위생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청결 우수업소에 남원시 최초로 추어탕 전문점 새집(대표 서장삼)과 상록골프장(클럽하우스) 2곳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업소에 표지판을 게첨했다.

친절·청결 우수업소는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칭찬과 담당 공무원의 현지 방문평가를 통해 식품·공중위생을 준수하고 친절·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인 곳을 선정하며, 현재 남원시에는 친절·청결업소와는 별도로 모범음식점 42곳이 있다.

남원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식품접객업,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를 대상으로 매년 12개 업소를 친절·청결 우수업소로 선정해 홍보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 방침이며,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 추천을 희망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즐길거리>친절·청결 우수업소 추천>란에 추천 글을 남기면 된다.

남원시 이순례 보전소장은 "시는 친절·청결 우수업소 선정으로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을, 업소에는 스스로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 만들기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확장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자전거 이용 시민안전 단체보험 가입

남원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8만3,000여명이며, 전체 보험료는 3,800만원으로 남원시가 일괄 납부해 2월1일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은 상해진단 4주 이상 20만원, 상해진단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휴양장해 1,000만원 한도 등이며, 보험금은 보험 청구서·진단서 등을 준비해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나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구립면 청년회 경로당에 국수 전달

순창군 구립면 청년회(회장 신정식)는 최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국수 38박스(150만원 상당)를 경로당에 전달했다.

이어 자양마을 류문수(전 조선대학교 교수)씨는 자양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50만원을 전달했다. 또 경로당 식사도우미로 활동하는 윤재례씨는 마을 경로당 LED 간판제작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도우미 수당(160만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신정식 회장은 "매년 회원들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구립면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청년회가 구립을 지키는 단단한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립청년회는 매년 경로당에 멸치, 라면, 국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립노래자랑, 노인잔치, 저소득층 봉사활동 등 구립면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성수면 자율방범대

### 저소득가정에 난방유 지원

임실군 성수면 자율방범대(회장 강재현)는 최근 난방비 부담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5가구에 총 10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올해 5가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율방범대 강재현 회장은 "난방유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소외된 이웃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심상생생 건강교실 운영 간담회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최근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심상생생 건강교실' 발전방향과 안정적인 고충철출로 남원형 일자리 연계를 위한 건강교실 운영강사와의 소통행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심상생생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놀이터로 2012년 시작해 255개소 6,103회를 운영했으며, 현재 283개 마을 곳곳에서 프로그램 호환 중에 운영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